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2호 【루계 제25986호】 주체107(2018)년 4월 2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위대한 승리, 주체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웅대한 강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의 반향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정치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병진의 기치높이 전진해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은 크게 두개의 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로정이였다고 볼수 있다.

하나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부럼없는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하여 정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은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용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되였다.

우리 혁명은 마침내 최후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는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대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경제건설대진군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굴함없는 공격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전인민적인 결사전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다.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기적적승리들을 불과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달성하여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제탄생하게 하였으며 경제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하였다.

우리 혁명이 자기의 시간표와 로정대로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는 지금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당사상전선의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선도해나가야 할 사상적기수,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시대적사명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겠다.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겠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은 병진로선을 결사관철하던 때처럼 오직 자력갱생, 전인불패의 정신으로 기적적승리의 포성을 련이어 울려나감으로써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세계앞에 증명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 광 호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로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우리 국가의 실제와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는 위대한 승리의 촉포성이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로선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인 로선이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하여 우리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일수 있는 결정적조건을 마련하였다. 이제 경제건설에 더 큰 박차를 가한다면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상은 가까운 앞날에 실현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그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 현실적인 로선이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있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은 의연히 지속되고있지만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급부상시킨 불가항력적힘을 최대로 분출시킨다면 경제강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맡고있는 책임과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내각과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어떻게 분발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국가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뜻을 뼈속깊이 새아박고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며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건설전반을 활성화해나가겠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죽으나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제시된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 헌신분투하겠다.

내각부총리 임 철 웅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앞장에서 받들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단계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열린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이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은 커다란 격정으로 가슴들먹이며 걸어온 길을 뜨겁게 추억하였다.

병진의 기치따라 만난을 헤치며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나날에 도안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더욱 굳게 간직한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위업에 대한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갈 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것이다. 그것은 결코 그 어떤 책자우에 씌여진 글발이 아니였다. 당을 받드는 충정의 한길에서 심장에 쏘아박은 불변의 철리였다.

지금 도안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불세출의 명장,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위대한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 총궐기해나설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갔습니다.》

우리 도는 강원도정신이 창조된 력사의 땅이다.

우리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맨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시대의 기수가 되겠다. 이를 위해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불러일으키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겠다.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사상전의 화력을 집중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과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억척같이 간직하도록 하겠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겠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도안의 5개 군민발전소건설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어김없이 완공하겠다. 당의 현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서 도안의 당조직들과 근로자들이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앞장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박 정 남

자력갱생은 우리의 필승의 보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승리의 봄우뢰와도 같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은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도 환희의 불, 격동의 불을 지펴주었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우리가 맞고보낸 한해한해의 날과 달들을 그려볼수록 실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진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수호와 부강발전을 위한 번혁의 전지에서 불패 5년이라는 세월은 극히 짧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모시고 헤쳐온 그 짧고도 영광스러운 백승의 행로에서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는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았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철생산체계완성을 금속공업발전의 진로로 밝혀주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인 주체철생산을 위해 김철과 강선, 황철 등 철의 기지들에서 주체화의 불길은 얼마나 거세차게 타번졌던가.

제힘이 제일이고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만장약한 황철과 김철의 로동계급은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주체의 쇠물을 보란듯이 끓여냈고 철의 기지마다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한 주체철생산의 활로가 힘있게 열리였다.

그 나날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야 할 투쟁정신이라는것을 뼈에 새겨안았다.

지금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주체철생산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일의에 충만되여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지금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이 철강재이다.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겠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길에서 우리는 자력갱생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주체화의 조성을 우렁차게 울리며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갈것이다.

금속공업상 김 충 걸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인재바다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우리 대학 전체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부풀어오르고있다.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제단으로 이룩되고있는 내 조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짓부시며 세계에 우뚝 솟아오르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힘,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길에 뚜렷한 리정표로 내세운 주체적인 로선들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심장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 조국의 즐거운 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열려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에게는 과학과 교육을 더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킬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있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교육은 정화롭고 안정된 환경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다. 바로 강력한 국력을 키워 후대교육사업의 성과적발전을 위한 만전을 마련해준데 우리 당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있는것이다.

우리는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미래를 담보해나갈 혁명인재육성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당면하여 공과교육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더욱 완성하며 대학창립 70돐까지 대학전반의 교육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겠다.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데서 선두마차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 서 헌

맹장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겠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긍지높이 선언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수백만 청년들의 가슴속에는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르는 길은 곧 승리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이 꽉 들어차있다.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로선관철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한껏 떨쳐갈 일념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자신께서 마치신 정력적인 로고와 눈물겨운 헌신은 다 묻어두시고 우리 인민을 그렇듯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커룡하신 위인적풍모는 애국의 피끓는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고있다.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인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의 앞장에는 응당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서야 한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기적적승리와 영웅적위훈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의 슬기와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겠다.

위대성교양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시키고 그들이 전투장들마다에서 사상과 신념의 위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겠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청년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남들이 접은 열걸음, 백걸음을 단숨에 뛰여넘는 맹구진, 창조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겠다.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더욱 활기있게 전개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백두대지를 들썩하게 하며 거창한 발전소들을 일떠세우던 그 투지, 그 본때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영웅적대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하겠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 철 민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관차가 되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국가과학원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온 세계를 진감시키는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는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여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과학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우시고 주체과학기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속에서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음을 우리는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지금 최후승리를 향한 혁명적인 총공세에 떨쳐나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을 열화같은 애국의지로 높뛰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려는것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맹세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여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용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과학기술로 결사옹위하며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에서 기관차로서의 역할을 더 높여나가겠다.

우리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원료, 자재, 설비를 주체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겠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첨단돌파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세계를 놀래우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과학으로 흥하고 과학으로 번영하는 시대로 빛내이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국가과학원 원장 장 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정 론

승리의 환희 하늘땅에 차넘친다

력사의 4월 20일,

끓어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사회주의 이 조선의 위대한 승리와 보다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미래를 이날과 더불어 가슴벅차게 안아본다.

지구가 또 한번 뒤흔들리였다. 조선의 불우뢰가 전례없는 충격파를 일으키며 세계를 진감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 제시!

시련을 이겨내며 병진의 험난한 길을 헤쳐 기어이 승리의 상상봉에 올라선 인민의 환희가 하늘에 닿고 더 밝고 더 양양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다는 신심과 락관으로 온 강산이 끓고 격동으로 설레인다.

전세계가 매일같이 조선에서 울려오는 경이적인 소식에 귀기울이며 놀라는 참으로 희한하고 사변적인 2018년의 날과 달이다. 지구를 진동시키는 《조선충격》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감격이 가슴마다 용암처럼 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그 거룩하신 존함은 가장 성스럽고 대륙적인 부름으로 이 행성의 시공간에 가득차 어디서나 태양처럼 빛을 뿌리고있는 속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정녕 력사적인 그 회의장을 그려만 보아도 천만의 가슴은 해솟는 바다마냥 세차게 설레인다.

그렇게도 간고분투하며 이룩한 병진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온 세상에 선언하실 때 절세의 위인, 백승의 령장을 우러러 뜨거움에 눈굽을 적시던 참가자들과 그 력사적순간을 보며 우리는 이렇구나,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또 이긴다고 저마다 감격을 터치는 이 나라 인민의 열광의 파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세차게 솟구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키나긴 로정에는 우리 당이 중대한 전략적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들이 많았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를 향해 질풍치며 나아감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혁명의 보다 높은 력사적단계를 열어놓고 그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보검, 휘황한 설계도이다.

주체의 쇠물목을 쏟아내는 용해공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오른다. 올해에도 다수확의 승전고를 높이 울릴 불타는 열망을 안고 포전마다 애국의 구슬땀을 뿌려가는 성천군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도, 민들레학습장을 차곡차곡 넣은 《소나무》책가방을 자식들의 어깨에 메워 등교길에 내세워주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슴가슴에도 뜨거움이 굽이친다.

《막 신심이 차고넘칩니다. 쇠물을 더 많이 뽑아내여 강철로 당을 보위하고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인민이라는 두글자만이 꽉 차있습니다. 고생도 달게 여기며 오직 우리 원수님만을 따라 달려온 보람이 이렇게 클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승리!

돌이켜보면 우리 얼마나 이 말을 많이도 외워왔던가. 조국해방의 승리, 승리의 7.27, 고난의 행군의 승리…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승리의 력사우에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긴다.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가 굳건히 다져지고 대세의 흐름과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을 안아온 오늘의 이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빛나는 승리이다.

정녕 이것은 정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그처럼 오랜 세월 허리띠를 조이고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위대한 승리로 빛나게 결속되였음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조선의 힘찬 선언이다.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은 우리 세대의 더없는 긍지이다.

최후승리를 향한 또 한번의 전진이나 상승이라는 말로는 이 사변의 의미를 다 담을수 없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되였음을 온 세상에 과시한 긍지높은 선언, 이제 우리 인민은 머지않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그 모습 찬연히 떨칠것이며 《이 땅에선 모든 꿈이 부어지리》라는 《조국찬가》의 구절은 노래만이 아닌 현실로 더욱 눈부시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새 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자랑하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서서 자기 운명과 미래를 보란듯이 개척해나가게 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력사에서만이 아닌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투쟁에서도 특기할 장을 열어제끼는 또 하나의 정치적사변이 아니겠는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이는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드리는 충정의 보고이며 우리 세대만이 아닌 후손만대의 밝은 앞길에 펼쳐진 광휘로운 행복의 무지개, 번영의 활로이다.

얼마나 기다려온 가슴벅찬 새 진격의 시각인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이다.

경제건설대진군, 이것이 우리앞에 펼쳐진 새 승리의 주로이며 혁명적총공세의 거세찬 불길이다.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야 하는 시련속에서도 우리 주저없이, 동요없이 자위의 억센 힘을 다진것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룡성번영의 만년토대를 닦기 위해 우리 그처럼 장구한 세월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야만 했고 바로 그 길이 있어 오늘은 드디여 부흥에로 향한 직선주로에 들어서지 않았던가.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은 가슴마다에 신심은 넘치고 용기는 백배해진다.

최단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은 보통 간고하고 어렵지 않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자강의 위력을 날로 더 높이 떨쳐나가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확정적이다.

주체의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을 떠밀어주는 무궁무진한 추동력이다.

우리 승리자의 추억을 안고 가슴뿌듯이 돌이켜본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수 있었던가.

지금도 5년전 3월전원회의의 력사적화폭이 눈앞에 방불하게 어려온다. 력사에 류례없는 대결단을 내리시던 우리 원수님,

정녕 그이는 승리의 태양이시며 우리는 그이께서 이끄시는 영웅적조선인민이다.

누구나의 가슴마다 운명의 태양으로,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으로 어려오는분. 그이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다.

오로지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 하나의 불타는 일념을 안으시고 강대한 이 조선의 모든 승리와 번영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인민의 웃음 넘치는 문명의 화원들에도 가보고 새로운 건설신화가 창조된 기적의 땅들에도 가보시라. 그러면 그 어디서나 사랑하는 이 나라 인민을 위해 새겨가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을 눈물겹게 안아볼수 있다.

자나깨나 그이의 가슴속에는 행복에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시려는 불같은 열망뿐이시였다.

하늘처럼 여기시는 그 인민을 위할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웃으며 걸고걸으신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모습 려명거리의 70층초고층살림집에도 새겨졌으니 사람들이여, 우리 가슴뜨겁게 새겨안지 않았던가.

그날 우리 원수님 오르셨던 아찔한 70층초고층살림집이 한창 건설중에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심히 더 높이 떠받들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늘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이시기에 한겨울의 차디찬 마식령의 공중작도에도 제일먼저 오르시였고 라선시의 피해지역에도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지 않았던가.

지금도 흙먼지날리는 길로 운동화를 신고 오시여 전투장들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영상을 잊을수 없다.

하늘길, 바다길, 령길을 이어 머나먼 조국땅 한끝으로 거듭 찾아가시였던 우리 원수님, 원수님의 운동화자욱이 찍힌 마당가의 흙을 정히 안고 볼을 비비며 울던 라선사람들, 우리 원수님 타신 차를 따라 대하마냥 솟고솟으며 따라서던 진정에 넘친 그 모습들은 참으로 내 조국이 무엇으로 하여 강하고 무엇으로 그처럼 위대한가를 온 세상이 다 알게 한 력사의 산 화폭, 힘있는 증명이 아니였던가.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만이 자리잡고있었고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우리 원수님단 한분만이 계시였다. 이 불패의 혼연일체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우리는 세계를 놀래우는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낳았다.

해마다 우리의 경제가 기운차게 일떠서는 속에 새로운 건설신화,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황금해의 새 화폭이 펼쳐지고 사회주의옷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진 그 모든 기적의 력사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승리의 한길로 1초의 드림도 없이, 1mm의 편차도 없이 곧바로 달려온 승리의 날과 달들이다.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을 초강경으로 짓부시는 담대한 배짱, 조국의 10년, 100년을 내다보며 선견지명의 전략을 펼쳐가시는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우리 원수님 모시여 승리와 행복, 모든 영광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것이였다.

그래서 인민은 그이를 자신처럼 믿었다. 시련이 겹쌓이고 갈길이 멀다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받들어 조국번영의 만년토대를 다지시는 우리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서 수소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성새를 더 높이 쌓아올렸다.

그렇게 이 나라 인민을 품에 안아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운명의 수호자가 되시여 천만고생을 다하시며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안아오실 때마다 오히려 그 승리의 월계관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

정녕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 세월속에 우리가 심장깊이 또아박은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바로 이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단결의 힘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할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전면적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이며 과학의 힘이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은 우리 심장의 피를 끓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기본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며 과학기술의 힘이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번영을 선사하지 않는다.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그마한 권총의 격침을 자체의 힘으로 수리한 유격대원들을 회고하시며 그때의 교훈이 수소폭탄 한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화산시킨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안고있는 거대한 위력을 다시금 새겨보게 한다.

이렇듯 위대한 혁명정신에 인류지성의 첨단을 정복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의 위력이 결합될 때 그것이 얼마나 눈부신 기적을 안아오는가를 우리는 이미 지나간 5년세월에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쳤듯이 우리는 룡성번영의 눈부신 열매들도 그 힘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세계가 보란듯이 위성을 쏴올리고 우리의 비행기며 지하전동차, 세형의 뜨락또르 등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던 그 기세로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폭풍을 련속 일으켜 세계를 진감시키자.

오늘의 대진군은 조국의 만년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단순한 사회적진보나 문명수준의 척도를 훨씬 벗어나 한 나라, 한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전략적문제로 되였다는데 현시기 과학과 교육발전이 차지하는 중차대한 의의가 있다.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문제가 토의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우리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던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 구호를 되새겨보느라면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 세상에 제일 가는 교육의 나라로 빛내이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을 적신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 배움의 나라로 빛내이신 어버이수령님, 조국의 운명이 관가리되던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여 조국의 힘을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어 이 땅우에 과학중시, 교육중시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과 교육에 대한 관점문제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사는가,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가를 가르는 혁명가의 인생관에 대한 문제이다.

정법한 과학자의 착상속에도 세계를 놀래우는 발견이 있으며 소학교학생들의 성적증에도 주체조선의 래일이 비낀다. 과학의 힘이 커질수록 나라의 국력이 높아지며 아이들의 글소리가 랑랑할수록 혁명의 만년대계가 굳건해진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두가 배우고 또 배워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자.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중대한 책임을 걸머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투쟁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강대함과 후손들의 행복이 결정된다.

조국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멀고도 먼길을 헤쳐왔다. 하나 노래에도 있듯이 천리길 문난공에 만리길이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단순히 지나온 5년에 대한 총화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밝히는 혁명의 리정표이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안아올 영웅적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축도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는데 혁명의 밝은 미래와 최후승리가 있다.

이미 이룩한 승리도 위대하다.

허나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승리는 보다 휘황찬란하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벅찬것이며 오늘의 조선로동당의 전략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써 증명할것이다.

승리의 기세드높이 경제건설대진군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한다.

박옥경, 승철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가고갈 불같은 열의로 끓어번진다. 본사기자 찍음

불세출의 위인께 인민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불멸의 그 업적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리

온 나라가 끝없는 격정과 환희의 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는 위대한 승리자들의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조국강산이 끝없이 진감한다.

불같이 뜨겁고 샘처럼 순결한 이 나라 인민의 감격을 가슴뿌듯이 안아보며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긴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바로 그때문이였다.

평화수호의 그 강력한 보검을 위해 모진 시련과 난관도 제험해보았고 가장 귀중한 그 존엄과 행복을 위해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병진의 험난한 길을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당을 따르는 그 길에서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니 어찌 이 나라 천만군민이 격정에 휩싸이지 않을수 있으랴.

하지만 이 땅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퍼지는 인민의 환호성은 이룩한 승리에 대한 환희의 분출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확신, 민족의 천만년을 환희롭게 내다보는 인민의 끝없는 감격이 배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조선 무궁강대하다!

바로 이것이 창업한 4월의 위성과 더불어 이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리치는 신념의 웨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으며 조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누구나가 다 승리를 바라며 또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수많은 론의를 거듭하여왔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최첨단의 과학기술력…

하지만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승리의 비결에 대한 가장 귀중한 교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긴다.

위대한 승리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어떤 리론이 아니라 주체조선의 위대한 힘과 존엄, 이 땅의 위대한 승리로 확증한다.

우리 걸어온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중중첩첩한 시련의 준령을 넘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기준으로 삼으신것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였다.

이 조선은 반드시 강국으로 빛나야 한다는 철의 의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만을 누려야 한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

병진로선의 승리,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활짝 꽃피우시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였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조국앞에 상상할수 없는 시련이 막아설 때마다 우리 원수님께서 마음의 신들메를 더욱 조이시며 세기신 그 자욱자욱을.

깊은 밤, 이른새벽을 가리지 않으시고 수백리길을 달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들을 찾기도 하시였고 힘들어하면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면 안목도 띄워주고 슬기를 안겨주시며 이끌어주신분, 나라의 존엄을 빛내이고 국력을 억척으로 다지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붉은 당기가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에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빛내이고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그날을 위해 그렇듯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길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만단사연들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원수님의 자욱자욱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들이 보란듯이 세기적인 기적만을 창조하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에로 질풍노도처 달려올수 있었다.

보라, 위대한 당을 따라 걸어온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행복의 노래소리가 한껏 넘쳐나는 살림집들에 들려보아도 좋고 창조와 혁신의 동음높은 공장과 기업소들에 들려보아도 좋다.

그러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서 얻어주신 승리의 길이 있어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졌다는 진정의 고백을 들을수 있고 세계를 앞서나갈 만만한 야심과 드높은 신심에 넘쳐 비약하는 억센 숨결을 느낄수 있다.

그것은 그대로 이 땅에 부흥의 노래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로 이어져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력사적체험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생동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는 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꽃펴날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게 된다는것이 오늘 우리 천만군민이 더욱 길이 새기는 귀중한 진리이다.

위대한 당을 따라 걸어온 그 길에 솟구쳐오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시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기에 천만군민은 언제나 격정속에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것이다.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바로 이것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더욱 굳게 간직하는 신념이다.

이 땅의 천만군민은, 우리의 후손만대는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길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세계를.

위대한 승리가 장엄히 선언된 력사의 이 언덕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뜨겁게 웨친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계시여 이 조선 무궁강대하리라!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천만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천만의 심장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고결한 충정을 지니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는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을 열화같이 끓어번지게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것,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직하신 필생의 사명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꽃피우는 길이 곧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길이기에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모르시였고 그 길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될 때마다 우리 수령님들 생각으로 그리도 가슴 불태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기적과 변혁들을 이룩하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며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신분,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찾아뵈옵고 더 큰 승리를 안아올 결심을 굳히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각하시는 고결한 충정의 세계, 수령님들의 구상이고 념원인 사회주의강국을 키어 일떠세우실 불같은 행세와 실천속에서 오늘의 긍지높은 현실이 마련된것이니라.

력사의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는 모습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을 대해같은 사랑의 품에 안아 자신의 천만로고와 눈물겨운 헌신으로 엮은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별들이 짤빡이는 밤에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새벽에도 멀고 험한 길을 끝없이 헤치시며 세인을 놀래우는 력사적승리와 기적들을 안아올리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온 나라에 나래치는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이 땅에 솟아난 희한한 기념비적창조물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는 우리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긍지높은 현실, 나날이 더욱 커가는 황금해의 기적…

그 모든 거창한 창조와 변혁들이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땀방울, 지새우신 밤들을 눈물겹게 전하고있다.

만난을 헤치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천만로고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우리 인민은 지금 이 시각도 경애하는 그이를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뜨겁게 눈시울 적시고있는것이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이 울려퍼지는 이 땅의 자랑찬 현실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심장을 불타게 하는 이 구호가 다 말해주고있다.

조국땅우에 펼쳐진 자랑찬 전변들은 인민사랑의 열과 정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멸사복무의 날과 달을 끊임없이 수놓아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는 만족이 없으시였다.

하나의 제품을 놓고도 인민들의 요구가 제품의 평가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의 권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당의 은정어린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아주시며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풍글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자신의 뜨거운 심중을 터놓으시고 뜻밖의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대결단을 내리신 우리 원수님 같으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이런 위대한 사랑과 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여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실 의지를 더욱 굳히신것 아니런가.

본사기자 백영미

령도자와 인민은 한마음한뜻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가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결코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얻어진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위대한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령도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열매이며 그것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이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얼마나 긍지에 넘쳐계시였던가.

병진의 험난한 로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멈춤없이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을 그리도 높이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정녕 이는 우리 조국의 제일국력인 경애하는 원수님과 천만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는것을 온 세계에 과시한 격동적인 나날들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력사의 그 어떤 도전과 역경도 일심의 위력으로 짓밟으며 강원땅의 인민들은 강원도정신을 창조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리마의 기상으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기적과 변혁의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였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우리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한걸음의 주저도, 한치의 에돎도 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오직 곧바로, 순간도 멈춤없는 련속공격전으로 보다 큰 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내달리게 고무추동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뜻깊은 당창건 70돐의 경축광장에서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심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확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가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진정을 피력하시였다.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해낼수 있는 빛나는 승리!

험난한 시련의 고비들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며 백배천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시고 우리 인민은 그이의 걸음걸음을 심장으로 따라서며 충정의 일편단심으로 영웅적위훈의 서사시를 창조하여왔다.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제시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도 확정적이라는것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주체조선은 나날이 백배해지는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키우시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받아안으며 천만군민의 심장은 무엇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던가.

자력자강!

이 위대한 기치를 떠나 우리 어찌 오늘의 눈부신 승리를 긍지높이 추억할수 있으랴.

돌이켜볼수록 천만군민을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의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고 전진하려고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길은 자력자강에 있습니다.》

떨쳐진 4월 백두산에 오르시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에서 창조된 자력자강의 정신을 신념의 기둥으로 억척같이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지펴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에 쪼아박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파감히 뚫고나가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던 나날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자강력만이 살길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기질도 자강력에서 나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온 나라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력사의 그 나날들과 더불어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어낸것이라면 못내 만족해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힘을 주고 믿음을 주시며 정을 기울이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력자강을 체질화한 강자들로 자라날수 있었고 이태전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승전포성을 련일 울릴수 있었던것이다.

참으로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벼려세기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은 백두전구에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를 일떠세웠고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로 자라났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첫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만들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는 가방용천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져 우리의 제품이 쏟아져나오고 새형의 트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이 기세찬 동음을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로 진출하는 장쾌한 광경도 펼쳐졌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사회주의선경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우리의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자력갱생의 기치는 우리 인민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상의 성과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혁,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하시면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자력자강은 조선혁명의 전력사를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힘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앞당겨나가게 하는 만능의 보검, 위력한 무기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을 받아안고 커다란 환희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대학생들 본사기자 리충성, 리봉규 찍음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종합적국력이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서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6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보내주신 2억 1 374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커다란 감격과 기쁨속에 받아안았습니다.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력사의 그날로부터 올해까지 절세위인들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실로 164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82억 1 973만 390₩의 거액에 달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원수님의 새해축전을 높이 받들고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며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보검, 한없이 귀중한 생명수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사상최대의 악랄한 제재책동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니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사랑, 후대사랑에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당의 부름따라 혁명적인 총공세로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여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고수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본태를 다시금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행로우에 반드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민족교육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세상이 일백번 변한다 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격동하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총련지부와 분회, 단체에 이르는 기층조직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족애국의 성새, 믿음직한 성들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학생들에게 수령관과 조국관, 민족관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골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더 많은 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맞아들임으로써 학생대렬을 기어이 늘이며 학교지원사업을 전기관,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려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4.24교육투쟁 70돐이 되는 올해 일본당국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민족교육탄압말살책동을 단결의 힘으로 과감히 짓부시고 민족교육권을 옹호화대해나감으로써 애국선대들이 피로써 지켜온 민족교육을 끝까지 사수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파탄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 적극 벌리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적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을 거세차게 조직전개해나감으로써 삼천리조국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공화국창건 70돐과 총련 제24차 전체대회가 열리는 력사적인 올해를 알찬 사업성과로 빛나게 장식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듭되는 사랑과 믿음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기어이 보답해나가겠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에로 헌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7(2018)년 4월 14일 일본 도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14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총련중앙 국장들과 고문,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조선대학교 학장, 간또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재일동포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6돐을 맞으며 일본돈으로 2억 1 374만₩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허종만 의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의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사상최대의 제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속에서도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에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끊임없이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이번까지 164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무려 482억 1 973만 390₩에 달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재일조선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상최대의 감사를 드리였다.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겨레의 평화통일열망이 어느때없이 고조되고 창건 70돐을 맞게 되는 공화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리고있는 벅찬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일본의 각지에서 경축대회와 연구토론회,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들로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고 주체조선의 상징이시며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인류자주화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며 20세기의 탁월한 정치원로이시라고 칭송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먼앞날을 내다보시고 령도의 제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계속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것은 엄적중의 가장 큰 엄적이라고 그는 격정을 터쳤다.

그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략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과 민족대단결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해 언급하고 인류정치사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는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와 더불어 무궁토록 빛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본땅에 끌려와 온갖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던 재일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동포들을 새 민주조선의 어엿한 해외동포로 따뜻이 안아주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독창적인 로선전환방침으로 민족단체이며 동포조직인 총련을 무어주시여 동포들의 애족애국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올려세워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령도업적이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해외교포들의 정연한 민족교육체계를 꾸려주시였으며 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때로부터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끊임없이 보내주시였을뿐아니라 귀국의 배길과 조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을 재일동포들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잊을수 없다고 그는 격정을 터쳤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총련령도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로 더욱 빛나게 이어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그대로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동포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은총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고 그는 감명깊이 말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며 지부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들로 다지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박력있게 벌려나갈데 대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가지는 첫 대회인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영광과 충정의 대회, 승리와 단결의 대회로 빛내이며 애족애국의 성스러운 행로우에 반드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울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각계층 동포들을 애족애국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데 대해서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고 조일우호친선을 위한 대외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번영은 확고하며 주체위업의 최후승리와 더불어 총련의 승리도 확정적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시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6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6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14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국장들과 고문,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와 학장,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총련본부 일군들, 재일동포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록화강연 《4월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시청하였다.

강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미제와 리승만매국역적도당의 영구분렬책동에 대처하여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개최하시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인 화폭들로 감명깊이 펼쳐보이였다.

강연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 오로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쌍그리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심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았다.

강연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따라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 투쟁에 한몸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4월의 봄우뢰와 더불어 더욱 억세여진 인민의 신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궁지높이 선언하고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행성을 진감하는 이 대사변을 체험하면서 우리 인민은 오늘 어떤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겼고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는것인가.

승리, 이 부름을 두고

우리 오늘 조용히 승리, 이 부름을 다시 외워본다.

이 부름이 사람들을 그토록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젖게 하는것은 바로 그 두 글자속에 한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너무도 귀중한 많은것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인민의 꿈과 념원, 존엄과 행복, 조국의 운명과 미래…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인민이든 승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마침내 값비싼 승리를 이룩했을 때에는 목청껏 만세를 웨치는것이리라.

하지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소식이 강산을 진감하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은 승리라는 이 부름을 쉽게 터치지 못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오늘의 승리는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게 웨치는 만세소리이기 전에 눈시울을 뜨겁게 젖게 하는 말, 형언키 어려운 승엄함에 목이 딱 메이게 하는 심장의 언어이다.

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4월의 장엄한 봄우뢰가 울려퍼진 때로부터 하루낮, 하루밤이 흘러가는 사이에 우리 본사편집국으로는 수없이 많은 전화들이 걸려왔다.

전류를 타고 끊임없이 울려오는 민심의 목소리는 하나와 같았다.

환희와 격정에 넘치는 그 목소리들에는 어렵고 곤난한 속에서 정화수로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데 대한 추억보다 먼저 뜨겁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문화성 극장인 문철남동무는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칭송하는 인민의 목소리를 글에 담아주십시오.

국가핵무력건설이라는 력사적대업을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승리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해낼수 있는 빛나는 승리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로선을 어느분이 내놓으시였습니까.

우리 인민을 어느분이 이끌어주셨습니까.》

저 멀리 북변의 외진 분교에서 교단을 지켜온 부부교원이며 격동적인 화선선동으로 대고조격전장들을 들끓게 한 정림한 녀맹원 슬선동대원들의 이야기도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다.

시련을 헤칠 때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절사전을 벌리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우러르군 하였다고, 그러면 새 힘이 솟고 주저없이 만난을 맞받아 뚫고나가게 되였다고 하는 그 절절한 토로들…

참으로 그렇다. 우리 인민이 과연 어느분을 하늘처럼 믿고 오늘까지 달려왔단 말인가.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였다.

정녕 그이께서는 오늘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시였던가.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리심없이 험한 길에 계시던 그이의 모습을 우리 얼마나 가슴뜨겁게 뵈옵군 하였으며 우리의 국력이 비약의 한걸음한걸음을 내짚을 때마다 그이의 남모르는 헌신의 순간순간들을 그려보며 우리 얼마나 격정에 겨웠던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 세월의 한끝까지 다 내다보신 그 현명한 시선을 따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넋을 바치고 뼈를 깎으며 죽음도 불사하신 그이의 불변의 의지에 떠받들려 오늘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되였다.

새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에로!

얼마나 가슴벅찬 시대인가. 천만심장마다에서 애국의 피는 끓어 신념과 열정의 불길로 용솟음친다.

북변의 한 농장일군은 전화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소식에 접하고보니 올해농사에서 또다시 풍작을 부르고야말 의지가 더욱 굳어진다고 흥분에 넘쳐 말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해 척박한 포전들을 기름지게 갈구고 다수확품종의 알곡을 심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이 어찌 이들만이 달성한 성과이겠는가.

우리의 승리,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승리이며 그렇듯 위대하신분과 뜻도 마음도 말걸음도 하나가 되여 폭풍쳐달려온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민이다.

이 위대한 일심일체가 안아올린 오늘의 승리와 함께 끝없이 이어질 래일의 새 승리들을 력사는 이제 더욱 눈부시게 아로새기리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해마다 기적과 위훈을 떨치였으며 내 나라 강산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서사시를 아름답게 수놓아왔다.

당의 령도를 일편단심 받들어온 그 길에서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철리를 더욱 뼈속깊이 쪼아박은 우리 인민이다.

지난 세기초 외세의 각축전장으로 화하였던 내 나라가 이제는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존엄높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새로운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최후의 승리를 안아올 력사의 주인공들을 부르고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조국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이 물음앞에 스스로 대답을 찾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풀과 말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라는 애국가의 구절이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철의 기지들에서는 우리의 원료와 연료로 생산한 주체철이 폭포처럼 흐르게 하고야말 로동계급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과학연구기지들에서는 과학기술로 부강조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질 명세가 활화산처럼 불타오른다.

인재육성의 원종장들은 태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칠수 있는 혁명인재들을 우후죽순처럼 키워낼 각오와 열의로 설레이고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가장 정확한 로선을 내놓고 헌명하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당이 있기에, 조선로동당의 부름이라면 폭풍도 격랑도 두려움없이 따라나서는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것이다.

그렇다.

성스러운 당기를 휘날리며 력사의 폭풍우를 뚫고온 우리 인민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후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그려보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의 령마루에 반드시 올라서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무쇠철마의 동음을 더 높이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시대가 격동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분화구를 터친 용암의 분출이런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우리 천만군민은 이름할수 없는 긍지에 넘쳐 격정의 환호를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달려온 병진의 로정과 그 길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를 뜨겁게 돌이켜보는 우리 천만군민, 그 대오속에는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있다.

당의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길에 아로새긴 이들의 투쟁위훈은 얼마나 값높은것인가.

주체104(2015)년 9월 15일부 《로동신문》 3면에 실린 기사 《당의 결심은 조선의 실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단 1년동안에 20여기의 발전설비를 생산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완공키일을 보장할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은 대안로동계급이 불과 석달만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을 결속하여 10월에로 향한 총진군대오에 신심을 떡궈해주고있다.

기계가공품과 제관품의 총중량으로 볼 때 근 1만t으로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훨씬 릉가하는 경이적인 성과, 생산능력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영웅적신화를 창조한 이들의 위훈에서 당과 조국은 또 한번 큰 힘을 얻고있다.》

이것을 어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이야기이라고만 하랴.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모두가 당과 수령의 결심을 무에서 유를 낳는 완강한 실천으로 받들어왔다.

당 제7차대회에 새형의 뜨락또르를 총정의 선물로 드린 금성뜨락또르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전후 맨주먹으로 35일만에 첫 《천리마》호뜨락또르를 생산한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였다고 하는 뜨락또르들의 기술적성능을 다 갖춘 새 뜨락또르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만들 때 이들이 넘고 헤친 시련의 고비는 그 얼마였던가.

이들은 설계에만도 8개월이상은 걸려야 한다던 기존관념을 타파하며 두달동안에 7 000여매의 설계도면을 그렸다. 우리가 만드는것은 단순한 뜨락또르가 아니라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땅크》라고 웨치며 2천 수백종에 8천 백수십개의 부속품들을 깎고 또 깎았다.

지금도 생생히 돌이켜진다. 완전유압조향장치에서 핵심적기능을 수행하고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에서만 제작기술을 독점하고있는 트로코이드치차만은 수입해야 한다고 머리를 흔드는 일부 사람들에게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쳤던가.

아니다. 가슴에 수류탄을 품고 적땅크밑에 뛰여들고 저격무기로 비행기와 맞서던 1950년대 화선용사들의 정신을 잊지 말자!

이것이 당의 병진로선관철의 길에 새겨진 우리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모습이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무쇠철마, 자력자강의 무쇠철마는 바로 이렇게 태여났다.

그러한 신념과 의지에 의해 새형의 화물자동차도, 우리 식의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들도 개발되였다.

주체105(2016)년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진행된 기계설비전시회와 지난해 12월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진출식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달리는 조선로동계급의 정신력을 뚜렷이 과시한 계기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구호를 가슴깊이 새기고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떨쳐일어섰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올해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우리 식의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거세찬 불을 달았다.

이 땅에 승리가 커갈수록 자기 힘을 더욱 굳게 믿고 자기 손으로 광명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사회주의무쇠철마의 동음높이 대진군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펼치리

청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청단군의 협동벌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이들의 심장속에서는 당의 뜻대로 주타작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고를 높이 울릴 애국충정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혁신의 새 소식이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높뛰게 하고있다.

청단, 청정, 남촌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많은 농촌들에서 논갈이에서도 전년에 비해 1.5배의 실적 기록,

놀라운 성과이다.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논갈이를 계획보다 4일이상 앞당겨 끝낼수 있다.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 눈부신 승리가 있고 가장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투쟁에서 애국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들이 있는 곳에서는 전에없는 혁신적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것이다.

심청농장, 갈산, 구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심청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최적기에 집적으로 끝내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여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는 갈산, 구월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고동치는것은 오직 하나이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소정, 화산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협동벌에 만풍년의 농악소리 높이 울리게 할 일의밑에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수확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수확지들에서도 높은 소출을 담보할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영농방법인 강냉이여러개씨모아심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아안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농사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봄철영농전투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일

절세위인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한없이 넓은 포옹력은 자주통일의 위대한 원동력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비망록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70돐을 맞이하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력사의 이날에 즈음하여 민족분렬의 첫 시기에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민족대단합의 전통을 마련하시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력사적인 전민족적대회합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투철한 자주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둘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하나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조국통일로선이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유엔의 간판밑에 《단선단정》 조작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던 엄혹한 시기인 주체36(1947)년 10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남북협상방안에 대하여》에서 우리 민족의 분렬을 노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독정부》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련석회의소집을 발기하시였다.

이 제안은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민족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당시 서울에서 발간된 《자유신문》은 남북련석회의소집에 대해 《남북분렬 3년의 암운을 헤칠 서광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 회담은 조선민족이 요구하는 유일한 활로이며 따라서 이를 희망하는 열의가 남조선 방방곡곡에 충만되여있다.》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소집제안을 천명하신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 어떤 주의주장이나 재산의 유무, 출신성분과 경력, 과거의 행적에 앞서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인사들뿐아니라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하여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진 인사들에게도 회의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조선의 특산인 하얀 비단천에 붓으로 한자한자 정성들여 쓴 애국충정의 기대와 념원이 담긴 초청장들은 그대로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의 얼어붙은 가슴마다에 새생의 희열과 애국열을 불러일으킨 봄빛이였고 황량한 들판에서 방황하던 그들을 애국의 길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손길이였다.

미국과 그 주구들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과 공갈을 다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공산분자, 용공분자로 처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리승만을 비롯한 친미반통일역적들은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방북인사들의 앞길을 막기 위해 시위와 통성높음까지 벌려놓았지만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부르는 한없이 넓고 인자한 품을 찾아 남조선의 파악, 중간은 물론 우익정객들도 저저마다 사선을 헤치고 평양길에 올랐다.

그들가운데는 해방전부터 공산주의라면 기를 쓰고 반대해왔고 해방후 남조선에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의장, 《민족통일총본부》 부총재 등을 하던 김구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의 마음속에 간직된 애국의 넋을 중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회의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주체37(1948)년 3월 몸소 그의 련락원을 만나주시고 반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김구만이 아니라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월송 등 당대의 민족주의거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에 공감하고 고매한 인품에 매혹되여 평양으로 찾아왔다. 당시 미국작가인 존 간서가 《리승만을 제외한 남조선에 있는 우수한 인물들이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고 심토한바와 같이 남북련석회의는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하고 북과 남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모든 인사들이 다 참가한 거족적인 회합이였다.

마침내 주체37(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의 참가하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망국적 《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이 거족적투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견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

구절구절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애족의 의지가 차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에 접한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이 당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장엄한 경종》,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명백한 조명》이라고 하면서 격찬해마지 않았다.

련석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단호히 반대배격할데 대한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통일투쟁에로 호소하는 격문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련석회의가 끝난 후 4월 30일에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에서는 쏘미량국군대가 조선에서 철거한 다음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수립한데 이어 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민주주의조선정부를 세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공동성명서가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일 대동강의 쑥섬에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련석회의 지도부성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통일적민주주의독립국가와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는 문제,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남북련석회의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분렬주의적책동과 《단선단정》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개시를 알리는 포성으로 되였다.

남조선 각지에서는 《단선단정》 반대투쟁위원회들이 조직되고 파업투쟁과 동맹휴학, 시위, 폭동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파악, 중간, 우익세력할것없이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 배격하였다.

《5.10단선》 반대투쟁은 나라의 통일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불굴의 의지, 단결된 힘을 내외에 보여준 거족적인 구국투쟁으로서 4월남북련석회의의 거대한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첫 승리였다.

태양의 빛발아래 줄기차게 이어진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장정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민족대단합의 위력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불멸의 대장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8(1949)년 6월 전조선적인 통일전선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신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체에 묶어세우고 민족대단결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신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던 주체39(1950)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8.15를 계기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최고립법기관을 창설할것을 제의하는 평화적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냐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지던 1970년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고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0(1981)년 8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소집제안을 내놓으신데 이어 주체71(1982)년 2월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명의로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련합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도 북남련석회의와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대화와 협상을 위한 폭넓은 방안들을 내놓으시였다.

민족대단합실현을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애국헌신과 탁월한 령도가 있어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이 하나로 뭉친 상설적인 전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는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주시여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하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민족대단합의 위력으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온 겨레를 민족단합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룩하시려는 웅지를 안으시고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과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던 쑥섬에 혁명사적지를 건설하며 통일전선탑을 건립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웅치수려한 대동강의 쑥섬에 건립된 통일전선탑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어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장군님의 고귀한 뜻이 뜨겁게 어려있는 불멸의 기념비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친필비가 통일의 상징으로 세워지고 평양의 통일거리에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거연히 솟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겨레에게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가장 옳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대한 조국통일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 뜨거운 동포애로 민족대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전환적국면을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따라 북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을 망라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련대련합이 실현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포옹력에 이끌려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였던 정주영을 비롯한 수많은 남조선인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과거경력이 어떠하든 묻지 않으시고 대범하게 포옹하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대성인이시였다.》, 《이 세상에 김정일장군님처럼 도량이 넓고 너그러우신분은 없다.》, 《사상과 리념의 차이, 신앙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애국의 길에 나선 만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을 베푸신 김정일령수님은 인덕으로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해내외 각계층 동포들속에서 울려나온 이 칭송의 목소리들에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녀본적이 없는 숭고한 덕망과 무한대한 도량으로 온 민족을 따뜻이 한품에 안아주시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시고 자주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다.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풍모를 지니시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고 민족대단결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무궁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절세위인의 령도가 안아온 민족대단합의 새 전기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과 주체102(2013)년 신년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실 웅지를 피력하시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퍼진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는 불멸의 선언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력사적로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민족자주와 대단합, 애국애족의 정률과 전통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비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에 따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3돐을 맞으며 격화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남당국과 민간단체들의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할데 대한 제안이 발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주체103(2014)년초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의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였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과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2돐을 앞둔 주체103(2014)년 6월 30일에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사안들을 담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이 남조선당국에 보내여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련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밝히도록 하시고 이를 위한 실천적조치로서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할것이라는것을 공식 천명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일행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의 인천을 방문하도록 하는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여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주체104(2015)년에도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명의로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호소문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렬한 통일애국의 호소에 화답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각계층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한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여 민족공동행사들을 전민족적대축전으로 정치적의의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렬한 통일애국의 목소리들에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녀본적이 없는 숭고한 덕망과 무한대한 도량으로 온 민족을 따뜻이 한품에 안아주시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시고 자주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다.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풍모를 지니시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고 민족대단결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무궁번영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해에도 북과 남의 당국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전민족의 대단결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번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애족의 뜻과 대용단에 따라 반목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조선반도정세는 지금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하고있다.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적극적인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통이 큰 결단과 과격적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는 날이 갈수록 우리 겨레와 온 세계의 열렬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올해초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대표단들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여 북과 남의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에 의해 열려진 화해와 단합의 길을 따라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예술단을 비롯한 남측의 사절단들이 련이어 평양으로 찾아와 만고절세의 애국자의 뜨거운 동포애와 헌출위인상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온 겨레의 크나큰 환심과 기대속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팀없는 의지가 안아온 민족사적대사변이다.

지금 온 겨레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통일애국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계시여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두리에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민족단결의 구심점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라고 심중의 격정을 터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세계정치와 조선반도정세흐름을 주도하시며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시는 헌출위인을 우러르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에 이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주체107(2018)년 4월 21일
평 양

일조우호 오까야마현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일본과 북남조선과의 우호를 추진하는 회 대표 미하라 세이스께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 오까야마현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나라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만경대는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혁명의 성지이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사상탑과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귀국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이 21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예술단들이 떠나갔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중조선인예술단이 21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악가가 갔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박해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김수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이 21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진국동지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조국통일운동의 자랑찬 년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한 력사로 빛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록음은 회합이 마련되게 된것도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불멸의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조국력사에 민족의 단결을 힘있게 과시한 애국적회합으로 아로새겨져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는 4월남북련석회의를 되새기느라면 겨레의 가슴가슴은 력사적인 회의를 마련하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젖어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참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어든 미제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부추겨 《단선단정》조작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은 민족분렬의 엄중한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것인가 하는 하나의 생각으로 모대기고 있었다.

이러한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며 자주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실 의지를 안으시고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신분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워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였다.

사상과 리념, 정치적견해가 다를뿐아니라 서로 적대시하여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의 운명문제를 론하는데 대해 과연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던가. 남북련석회의의 소집, 그것은 정녕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락월한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애국의 결단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였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한다는 진리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그에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제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민족해방투쟁을 벌리시는 과정에 민족적단합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북련석회의소집방안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은 물론 우익정당, 사회단체인사들까지도 그를 적극 지지하였고 신문, 잡지들도 그에 대해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남북련석회의의 소집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미국은 민족주의정객들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과 공갈을 다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우익정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주의세력을 대담하게 포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지난날 반공을 부르짖으며 민족앞에 지은 죄로 하여 현북애국의 길에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파견하시여 련석회의방침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동포애의 정이 담긴 초대장까지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고충과 외람된 요청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한없이 크나큰 도량과 포용력에 이끌려 남조선의 좌익은 물론이고 중간, 우익계렬의 많은 대표들이 저저마다 평양에로의 길에 올랐다. 우리 민족사와 조국통일운동사에 큰 자욱을 남긴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이렇게 열리게 되였다.

주체37(1948)년 4월 19일부터 평양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참가하에 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대책을 밝힌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교시가 가슴치며 울려온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망국적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이 거족적인 투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견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이 구절구절마다에 넘쳐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였다. 그들은 절세위인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여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위력앞에 너무 감격하여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면 뵈올수록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와 고결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으며 그이의 통일전선로선을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련석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단호히 반대배격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인민을 투쟁에로 호소하는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이 채택되였다. 련석회의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단결하면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현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통일위업에 바치신 고귀한 한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분렬로 하여 우리 겨레가 겪는 비극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고 그 길에서 불멸할 민족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가장 훌륭한 선물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의 기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그이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중히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

바로 여기에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조국통일에 대한 그이의 절절한 념원이 그대로 어려있는것이다.

정녕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는것을 자신의 평생소원으로 여기시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로고를 바치신것 아니랴.

우리 민족은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가 어려있는 그날의 교시를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그리시며

오늘도 겨레의 귀전에는 해방직후 평양으로 찾아온 남조선기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간곡한 교시의 구절구절이 메아리치고있다.

…내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동포들에게 가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북조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빨찌산투쟁을 한것도 전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북조선만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미제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것을 꼭 전해달라. 남조선동포들을 찾아갈 그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많다. …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의 첫 시기부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줄기찬 령도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하기에 우리 겨레 누구나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외울때면 눈물속에 어버이수령님을 절절히 그리고있다.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을 어떻게 보내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어떤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는가에 대하여서는 력사에 깊이 새겨져있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바로 그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준비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분초를 쪼개가며 사업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밤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원대한 구상과 방략이 뚜렷이 새워진 문건을 보아주시고 친필촌함으로 비준해주시였다.

《김일성 1994.7.7.》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평생소원으로 여기시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로고를 바치신것 아니랴.

우리 민족은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가 어려있는 그날의 교시를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그리시며

오늘도 겨레의 귀전에는 해방직후 평양으로 찾아온 남조선기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간곡한 교시의 구절구절이 메아리치고있다.

…내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동포들에게 가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북조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빨찌산투쟁을 한것도 전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북조선만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미제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것을 꼭 전해달라. 남조선동포들을 찾아갈 그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많다. …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의 첫 시기부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줄기찬 령도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하기에 우리 겨레 누구나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외울때면 눈물속에 어버이수령님을 절절히 그리고있다.

정녕 키키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한생의 고귀한 업적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본사기자

중국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응할 립장 재천명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응할 정부의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그는 미국내에서조차 자기와 남을 모두 해치는 미행정부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을 반대하고있다고 까밝히고 미국이 계속 흐름에 역행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단호히 대응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 세계의 다각적인 무역체제와 규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에서 군대절에 즈음하여 열병식 진행

이란의 수도에서 군대절에 즈음하여 18일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하싼 루하니대통령이 이란군과 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고위지휘관들과 함께 여기에 참가하였다.

열병식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지금 침략자들이 중동지역에 둥지를 틀고 비법적으로 주둔하고있으면서 유엔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란은 자기 령토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강화해나갈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들을 생산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각 군종, 병종 종대들의 열병행진이 진행되였으며 《카민-2》를 비롯한 각종 국내산 미싸일과 땅크, 장갑차, 반항공제대 등 무장장비들이 공개되였다.

이날 나라의 남부수역에서는 이란해군의 무력시위가 있었다.

일본인들 아베정권퇴진을 요구하여 시위

일본 도꾜에서 최근 아베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수상관저앞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약 8 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아베가 모리또모학원사건에 련루되고 이라크가 파견된 륙상《자위대》의 활동을 은폐시킨 사실을 문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내각은 퇴진하라!》, 《총사직하라!》는 구호들을 웨치며 수상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 반이스라엘집회 진행

팔레스티나인들이 17일 팔레스티나인수감자의 날을 맞으며 반이스라엘집회를 벌렸다.

가자지대와 이스라엘사이의 경계지역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백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이스라엘감옥에 갇혀있는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의 사진을 들고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그들은 국제공동체가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며 그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도록 할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1967년 중동전쟁이후 이스라엘이 체포한 팔레스티나인은 약 100만명에 달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 928명을 체포하였다.

감옥에는 20~30년이상 수감생활을 하고있는 팔레스티나인이 수십명이나 되며 많은 수감자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가리울수 없는 《반테로전》의 진면모

얼마전 로씨야의 보스크바에서 제7차 국제안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개막연설에서 로씨야국방상은 수리아정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은 비행대와 특수전부력까지 동원하여 《테로소탕작전》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이슬람교국가》의 통제구역만 확대되였다, 이것은 《반테로련합》의 목적이 지역정세를 혼란시키고 군사적 및 경제적개입을 강화하려는데 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미국의 《반테로전》은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거꾸러뜨리고 저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세계를 진실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결코 무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현세기에 들어와 《반테로전》을 개시한 미국은 지금까지 그것을 테로를 박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표사하여왔다. 그리고는 마치도 저들이 《정의의 수호자》나 되는듯이 행세하여왔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미국의 행적을 다시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다 세계를 기만하고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것이였다.

미국은 처음부터 《반테로》를 주권국가들의 합법적인 정부전복, 침략과 전쟁, 간섭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하였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 나라 대통령을 제거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그때 미국은 전쟁전야에 이라크가 《대량살륙무기를 개발》하고있으며 국제테로조직인 《알 카에다》와 련계를 가지고있다는 여론을 내돌렸다.

미국의 이라크강점후 그 모든것이 다 날조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라크에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이 나라의 싸담정권과 《알 카에다》사이에 그 어떤 련계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AP통신도 미중앙정보국의 한 비밀보고서를 인용하여 이라크전쟁전에 당시 미중앙정보국이 싸담정권과 《알 카에다》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가 싸담정권이 《알 카에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라크침공구실의 하나로 삼았다고 까밝혔다.

미국은 이라크가 테로와 련관이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을 날조하여 전쟁을 도발하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였으며 대통령을 살해하였다. 공공연한 국가테로행위였다.

미국의 오만하고 횡포한 행위는 어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반테로》를 계속 확대하면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이라크에 이어 리비아의 정권을 전복하고 《테로분자소멸》을 운운하며 파키스탄과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인기를 동원한 살륙전을 벌리였다.

오늘도 미국은 《반테로》간판을 내들고 수리아의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책동하고있다.

《반테로련합》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이대고있다. 지어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테로분자들을 리용하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앞에서는 《반테로》를 부르짖지만 뒤에서는 테로분자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대주고 군사훈련까지 주고있다. 이런 미국때문에 《이슬람교국가》라는 국제테로조직이 아직도 살아움직이고있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반테로전》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뒤집어엎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 국가테로행위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반테로전》의 기만성과 침략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세계는 미국의 《반테로전》으로 적지 않은 나라들이 페허로 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류혈적인 전란속에 빠져든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 위험성과 침략성에 대하여 똑똑히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김 학 남

력사의 심판에 역행하는 추악한 망동

남조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역도를 비호하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이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일 특대형부정추문행위의 장본인인 박근혜역도가 징역 24년형과 18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계, 민주개혁세력들과 각계층은 《초불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판결이다.》, 《박근혜에 대한 이번 판결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판결이다.》고 하면서 역도년과 함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리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책임은 끝나지 않을것》이며 《앞으로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국민심판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가 현재 선고된 형벌이 죄를 다 씻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도 선고공판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정치적희생자처럼 둔갑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론평을 통해 《국정》농락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참여련대는 이날 론평을 발표하여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민들의 투쟁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 볼수 없다고 하면서 공범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각계의 비판치는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보수패거리들은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게 된 역도년을 비호해나서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도마뱀의 꼬리자르기식으로 역도년을 출당시키고 결별을 선언하며 보수세력유지에 급급하였던 《자유한국당》것들이 지랄발광하고있다.

특히 원내대표 김성태는 지난 4일 박근혜년에 대한 1심선고과정에 대한 심황중계가 결정된데 대해 《죄인도 인권이 있다.》고 고이댔으며 역적당의 깡패들은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수도 있는것이 정치인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고 줴쳐대며 역도년을 비호해나섰다.

역도년에 대한 형벌이 선고되는 당일에는 《대한애국당》과 보수단체깡패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주변에 모여들어 역도의 무죄를 주장하는 추태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댔다.

극우보수패거리들은 《법원의 판결을 용납할수 없다.》, 《오늘은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역도년에게 내려진 선고에 반발하였다.

역도년에게 내려진 판결은 극악한 사대매국행위와 동족대결책동,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른 범하역적 박근혜년과 역도와 한짝이 되여 갖은 못된짓을 다해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선고이다.

그런데도 역도년은 보수여적무리들을 부추겨대며 반성은커녕 《항소》요 뭐요 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력사의 심판에 도전하여 미친개처럼 날뛰고있는 박근혜역도와 보수여적무리들에게는 추호의 타협이나 용서가 있어서는 안된다.

남조선단체들 미제침략군유지비삭감을 요구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불평등한 행정협정개정 국민련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사회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에 있는 외교부앞에서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의 유지비삭감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발표되였다.

회견문은 미국정부가 《불공정》을 운운하며 남조선에 미군유지비를 늘일것을 강요하고있고 현 《정부》는 이에 굴복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이 이미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의 73%를 내고있다고 하면서 회견문은 2017년까지 미군이 다 쓰지 않고 남겨놓은 돈은 약 1조원이나 된다고 까밝혔다.

회견문은 미국은 현 행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남조선에 유지비인상을 강요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따르면 남조선주둔 미군의 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게 되여있으나 《정부》는 지금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내고있다고 회견문은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남조선이 이미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있는데도 미국은 또 《싸드》유지와 전략자산의 남조선배치에 필요한 자금을 짜내기 위해 막대한 량의 유지비를 계속 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싸드》유지비용을 남조선이 부담해야 할 그 어떤 법적의무도 리유도 없다고 하면서 회견문은 미국과 《정부》는 불법적으로 배치한 《싸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견문은 미국전략자산의 남조선배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짐과를 초래할뿐이라고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초불의 힘에 의해 세워진 현 《정부》가 미군유지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4.16가족협의회와 4.16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 참가한 1만 5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들은 《세월》호참사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의지를 담은 손구호와 노란색의 리본, 고무풍선 그리고 초불을 들고있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재판에서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형량은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들은 박근혜《정권》시기 청와대는 국민의 목숨보다 박근혜를 위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더러운 박근혜《정권》의 책동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로 해산되였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다고 그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하라!》, 《《세월》호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구호들을 웨치며 박근혜역적패당의 특대형살인만행을 반드시 결산할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는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

얼마전 꾸바신문 《그란마》가 미국의 침략적본성을 단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목적과 그 수법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본내용을 보면 미중앙정보국의 한 인물이 꾸바를 겨냥한 문화전쟁과 관련한 회의에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몬로주의보다 부르죠아문화의 침투를 통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력설하였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신문은 미국의 반동문화가 세계적판도에서 미국식생활양식을 전파시키고 미국식가치관을 강요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그 어느 예술수단보다도 미국영화는 사람들이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오늘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수들을 비방중상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보다 중시하고있다고 폭로규탄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를 각성시키는 또 한번의 경종으로 된다.

미국이 감행하는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위험성을 똑똑히 인식하자면 몬로주의부터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의 5대 대통령이였던 제임스 몬로가 1823년 국회에 보낸 교서에서 제창한 몬로주의는 근 200년동안이나 미국의 침략정책을 뒤받침해왔다. 몬로는 아메리카대륙에 대한 미국의 《보호》라는 구실밑에 지역에서 미국의 침투를 강화하고 독점적리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 교리를 내놓았다. 어느 유럽렬강이 아메리카대륙에 새로운 식민지를 가지거나 압도적인 세력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저들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으로 된다는 몬로주의는 미국의 경제적침략과 령토강탈, 간섭을 합리화하는 대외정책의 핵으로 되였다. 몬로는 《아메리카나라들은 리해관계의 공통성이 있으며 아메리카사람들을 위한 아메리카가 되여야 한다.》는 요설로 저들의 지배야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였다. 그러나 몬로주의의 본질이 《아메리카사람들을 위한 아메리카》가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한 아메리카》라는것이 력사가 내린 평가이다.

미국은 몬로주의에 토대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일삼으면서 오늘처럼 미대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지배야망실현에서 몬로주의보다 퇴폐적인 반동문화가 더 큰 작용을 하였다.

미국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사람들의 진정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궁극에는 정부전복을 실현하기 위한 악랄한 침략행위이다.

미국은 《1 US$의 대외선전비용은 5US$의 국방비용과 맞먹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썩어빠진 미국식문화를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다.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와 테롤페덕으로 일관된 말세기적인 사상문화와 생활풍조는 인간의 건전한 리성을 말살하고 사회에 부패변질과 무질서를 야기시킨다.

제국주의사상문화에 포로가 되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적힘을 가지고있어도 맥을 출수 없다는것이 력사에 새겨진 피의 교훈이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두고 희공갈로도 이루지 못한 《승리》를 저들의 선전물이 가져왔다고 폐재를 올리였다.

최근년간에도 미국은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통하여 힘들이지 않고 침략적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으로 내정간섭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색갈혁명》을 통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투책동을 통하여 적지 않게 재미를 본 미국은 가능한 형식과 경로를 통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에 특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동적이며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과 풍조를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몬로주의의 성과가 앞으로 저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의하여 이어질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지난날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파괴된 물질적재부는 다시 축적할수 있어도 인간의 정신도덕적파멸, 민족의 사상문화적파멸은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

부르죠아반동문화가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사상적독해물이라면 사회주의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에 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담겨져있고 고상하고 건전한 생활방식이 반영되여있으며 정의와 진실을 대변하는 혁명적인 사상문화가 바로 사회주의사상문화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이 참다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즐기며 지혜와 재능을 꽃피워나가고있다. 명망높은 우리 예술단체들의 생기발랄하고 희열에 넘친 노래소리가 인민의 마음을 꽉 채우고있다. 사회주의진설의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인간의 사랑과 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고상한 인생관, 참다운 인간륜리가 차넘치고있다.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활짝 꽃펴나고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쁨과 피로움도 함께 나누며 남을 위하여 피와 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는 황금만능과 야욕강식,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설교하는 부르죠아문화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사회주의사상문화가 있는한 제국주의의 반동적사상문화는 절대로 발을 붙일수 없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는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응당 자기 식의 향위가 넘쳐나는 참답고 건전한 사상문화의 위력으로 진전해나가야 할것이다.

리 효 진

ㄱ-81064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